

## 古代漢語 ‘乃·則·且’의 副詞性

안기섭\* · 정성임\*\*

<目 次>

I. 들어가는 말	III. 古代漢語 ‘乃·則·且’의 副詞性
II. 古代漢語 ‘副詞’의 實·虛 귀속 및 副詞의 정의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현행 古代漢語 어법학에서 대부분 接續詞[連詞]로 분류한 ‘乃·則·且’의 副詞性을 살피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楊伯峻·何樂士(1992, 356) 등은 ‘乃’와 ‘則’을 ‘連接副詞’의 하나로 본다. 이들은 앞뒤 어구 사이에 놓여 承接(순접)이나 轉折(역접)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連接副詞로 보고 ‘乃’·‘則’·‘蓋’·‘顧反’ 따위를 連接副詞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또한 單語와 單語·句와 句·節[分句]과 節[分句]·문장과 문장 사이에 놓여 병렬·순접·역접·선택·점진(점층)·양보·인과·가설 관계 따위를 나타내는 어휘를 접속사로 분류하였다.<sup>1)</sup> 連接副詞와 接續詞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종래 단어·구·절 또는 독립된 文章을 연결하여 그들 간의 여러 가지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접속사[連詞]로 분류하는 서구의 품사 분류를

\* 全南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教授

\*\* 全南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講師

1)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北京, 語文出版社, 1992), 457-459쪽.

원용하여 古代漢語에서도 접속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품사체계를 기술해 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것들의 虛詞의 통사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에서 이것들의 기능을 탐색한다. 이들 단어가 여러 가지 통사 관계를 결정하는 접속사가 아니라 實詞用으로서의 이들 단어가 갖는 의미와 문맥에 의해서 각각의 통사관계가 결정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名詞·動詞·形容詞·副詞·代詞 등의 實詞, 虛詞를 하나의 품사류로 묶어 助詞로 통괄하는 체계에 따라 귀속시킴이 옳다고 본다.<sup>2)</sup>

서구 언어에서의 품사[詞類] 분류 방식과 접속사의 내용에 이끌려 필요 이상으로 건강부회한 탓으로 사람마다 그 범위까지 달리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어떤 단어는 介詞를 인정했을 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예: 於) 하나의 단어가 거의 모든 통사관계를 다 나타내는 것으로(예: 而) 기술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이다. 다음으로 품사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만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접속사와 介詞, 접속사와 助詞, 접속사와 副詞 등의 경계를 가르기 어렵게 하고, 심지어 접속사와 動詞, 접속사와 名詞의 경계까지 혼란스럽게 하였다. 이는 漢語의 품사 분류상 매우 중요한 기준의 하나인 ‘虛’와 ‘實’의 문제와도 결부된다. 또한 단어와 구의 경계 분별 체계 역시 느슨하게 만들어버린 결과를 초래하였다.<sup>3)</sup> 다음의 ‘접속사의 종류’ 분류는 상술한 혼란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접속사로 분류한 단어가 출현하는 구 또는 문장(單文과 複文 중의 절 포함) 사이의 통사관계로 각각의 접속사의 기능에 의해 나타난다고 여겨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들 단어가 쓰이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 내지 여러 가지 통사관계(의미관계)가 전달된다. 그렇다면 종래 접속사로 분류해 온 이들 단어들은 각각의 통사관계를 나타내는 필요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통

2) 안기섭·정성임, <先秦-兩漢 漢語의 품사체계 新論>, 《中國學研究》 37 집 (2006. 9).

3) 윤석례, 「《孟子》 複音節詞 研究」(전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참조: 國家 寒疾 夫子, 良人 따위.

사관계는 단어의 실질적 의미와 문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접속사로 지목해 온 이들 단어의 기능은 다른 데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통사관계를 나타내주는 성분이 아니라 실사 또는 허사로서 다른 기능을 하거나, 다른 기능을 지님과 동시에 그것이 갖는 실질적인 의미에 의해서 통사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하거나 부가해 주는 기능을 갖는 성분인 것이다. 요컨대 이들 단어가 접속 기능을 갖는 하나의 품사류가 아니라 실사의 하나이며 문장 중에 쓰인 다른 단어들과 이것이 구성하여 나타내는 의미와 문맥에 의하여 전후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지, 접속사라고 하는 품사가 쓰임으로써 모종의 전후 관계가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다. ‘而’와 같은 허사의 경우도 접속사가 아니라 조사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sup>4)</sup> 다음은 종래 접속사를 인정하고 기능을 나누어 분류한 것들을 총괄한 일예이다.

- 가. 竝列關係: 而·以·與·且·及·暨 따위
- 나. 漸層關係: 況·且 따위
- 다. 選擇關係: 或·若·如·抑·意·將·亡其 따위.
- 라. 順承 및 結果 關係: 而·以·於是·則·即·斯·然後·而後·然則 따위.
- 마. 轉折關係: 而·然·但·願·然而·抑·則 따위.
- 바. 因果關係: 以·爲·故·是故·以故·是以·是用·則 따위.
- 사. 假定 및 條件 關係: 如·若·苟·使·而·即·假令·果·設·向使 따위.
- 아. 讓步關係: 雖·縱·自·雖然] 따위.
- 자. 修飾關係: 而·以 따위
- 차. 比較關係: 與…(寧, 孰若, 豈若)…·與其…(豈若, 孰若, 不若, 不如)…·寧…(不, 無, 將)… 따위
- 카. 目的關係: 以.

이 글에서는 위에 나열한 어휘 각각의 품사성을 전부 논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므로 이 가운데 ‘乃’·‘則’·‘且’의 쓰임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들 단어들이 공통으로 갖는 품사를 살펴본다.

4) ‘而’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상론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공시적 기술의 확보를 위해 인용문은 先進-兩漢의 문헌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馬建忠(2004)의 《馬氏文通》과 楊伯峻·何樂士(1992)의 《古漢語語法及其發展》은 지금까지의 한어 문법 연구의 결과를 총 망라하고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그간의 잘못된 기술들이 대체적으로 총괄되어 있다고 여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이들이 허사로 다룬 ‘乃’·‘則’·‘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이들의 부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II. 古代漢語 ‘副詞의 實·虛 귀속 및 副詞의 정의

古代漢語의 虛詞에 대한 인식은 漢代에서부터 보인다. 단어는 부단히 생성되고 발전·변화하며 소멸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앞 시기 언어를 뒤 시기 언어로 해석하는 訓詁를 행할 때,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여긴 어휘에 대해서는 ‘虛’ 등의 글자로 그 개념을 나타내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모종의 문법적인 기능만을 갖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글자와 표기가 같은 경우(同一文字)가 많고, 文法化의 주된 요인이 되는 단어의 虛化가 부단히 진행되어 동일한 문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증가한다. 이로 말미암아 소위 ‘虛’에 대한 인식은 前代 언어에 대한 各人의 해독 수준과 이해 방식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虛와 實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고, 언어와 문자의 본래 속성으로 인하여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음을 피할 길이 없다. 게다가 訓詁에 있어서의 實·虛 인식은 현대의 서구식 문법적 사고, 예컨대 품사론 같은 관점에서 다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古代 經典의 注釋에 사용한 ‘詞, 語助, 助語’ 등의 용어가 가리키는 단어 나, 劉勰이 《文心雕龍·章句三十四》에서 “至於 夫惟蓋故 者, 發端之首唱, ‘之而於以’者, 乃節札句之舊體, ‘乎哉矣也’者, 亦送末之常科.”(‘夫惟蓋故’와 같은 것은 시작을 머리에서 알리는 것이고, ‘之而於以’는 곧 어구 가운데

에 삼입된 옛 형식이며, ‘乎哉矣也’는 역시 끝을 마무리하는 통상적인 부류이다)라고 하여 문장 속에 놓이는 위치에 따라 분류한 이들 단어는 대부분 虛字의 개념 범주에 드는 것들이다. 宋代 이후 소위 ‘虛字’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각각의 기능을 설명하는 용어가 생겨나고, 이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총괄하는 개념들이 만들어진다. 元代에 盧以緯가 《語助》에서 虛字의 쓰임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清代에 이르러 劉淇의 《助字辨略》, 王引之의 《經傳釋詞》, 袁仁林的 《虛字說》 등에서 虛字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총괄한 것이 그것이다.

《馬氏文通》이라는 돌출한 저작이 영어 문법의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기술하기 위한 술어들을 쏟아냄으로써 단어의 虛와 實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오늘날 ‘虛詞’라는 이름으로 아우르는 고대한어의 어휘들은 清代의 여러 저작 중에서 ‘虛字’로 지칭되는 어휘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현대에 이것들의 하위 분류체계를, 《馬氏文通》을 계승하여 介詞·連詞·助詞·嘆詞로 정착시키면서 허사에 드는 어휘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오늘날 대표적인 부사로 여기는 어휘들을 《馬氏文通》 이전에는 ‘虛字’로 여겼는데, 《馬氏文通》은 오늘날의 부사에 근접하는 단어군을 ‘狀字’라 이르고 이를 ‘虛字’가 아닌 ‘實字’로 여긴 점이다. 그는 고대한어의 품사를 9가지로 나누고 ‘名字, 代字, 動字, 靜字, 狀字’는 實字로, ‘介字, 連字, 助字, 嘆字’는 虛字로 여겼다. 馬建忠이 ‘狀字’를 ‘實字’로 여긴 것은 그가 영어에서 ‘副詞’가 수식 기능을 담당하는 두 부류의 대표적인 어휘 가운데 하나이고, 수식 기능을 하는 바라면 ‘虛字’일 수 없기 때문이었음을 시사한다. 그의 책이 清代 학자들의 인식을 계승한 면을 여러 곳에서 보이면서도 부사를 ‘實字’라고 여긴 것은, 漢語에서 ‘副詞’라는 품사의 시작이 ‘狀字’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대 학자들의 ‘副詞’가 ‘狀字’를 계승한 것인데도 이를 ‘實詞’로 여기는 사람에 못지 않게 ‘虛詞’로 여기는 사람도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말한다면 ‘虛’와 ‘實’에 대한 인식이 직관의 범주

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양자를 구분하는 이유와 뿌리 및 경계를 명확하게 살피지 않은 탓이라고 할 수 있다.

漢語에서도 품사를 가르치는 기준은 단어의 실질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문법적 기능)의 차이이다. 그런데 영어에서 기능적 의미를 갖는 중대한 표지인 형태나 형태의 굴절 변화가 漢語에는 결여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기능적 의미만을 갖는 단어를 ‘虛詞’라고 명명하면서도 실사와 허사의 경계에 대하여 공통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히 허사의 하위 부류 분별에 있어서도 혼란이 적지 않다.

실·허의 개념 구분은 사람마다 자의적인 관점을 들이댈 수 있다. 그러나 품사론에서 단어의 의미와 직능, 즉 실질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에 의해서 단어의 부류(詞類)를 나누고, 직능은 주로 통사론의 각도에서 확인되므로 실·허의 경계를 그다지 어렵지 않게 잡을 수가 있다. 부사에 관한 한, 문장의 두 가지 수식 성분 가운데 술어성의 동사·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단어를 정의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수식 받는 말이 있고 그것을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수식하는 말을 ‘虛’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글에서 부사의 실·허에 관한 접근도 논의상 중요한 하나의 방편이 된다.

‘副詞’를 ‘虛詞’로 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은 영어 문법에서 ‘副詞’라는 품사의 설정이 다른 품사들과 마찬가지로 단어의 문장 중에서의 기능(문장 성분)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통찰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副詞’의 기능이 ‘수식’에 있다고 하면서도 ‘虛詞’라고 하는 까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虛’의 관념은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副詞’의 기능이 술어, 다른 부사 또는 이들에 상응하는 어구의 수식에 있으며, 수식하는 말이 되려면 의당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므로 ‘實詞’로 여긴다. 비록 고대한어에서 부사가 다른 實詞들과는 달리 오직 수식 기능의 하나인 부사어로만 쓰이지만 그것이

허사로 여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것도 고대한어 부사의 한 특징일 따름이지, 술어·보어·주어·목적어·관형어 등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虛詞’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아울러 단독으로 대답에 쓰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허사로 여기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근래에 현대한어에서나 고대한어에서나 부사를 허사로 여기려는 경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다.

‘以·與’ 등이 동사·개사(전치사)·연사(접속사)에 두루 속한다고 여기고, ‘得·欲·可·足’ 등이 일반 동사나 일반 형용사로 쓰임과 동시에 다 같이 조동사에도 속한다고 여기며, ‘舉·益·無’ 등을 동사와 부사를 겸하는 단어로 여기고, ‘惡·焉’ 등을 대사 겸 부사로 여기는 따위는 모두 상술한 문법 관념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가지 의미만을 갖는 단어와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의 의미가 문장 가운데서 오직 부사어로만 쓰여서, 명사·동사·형용사·대사·수사 등이 이들 품사성을 지닌 채 부사어로도 쓰이는 것과 다르다면, 이 의미는 ‘부사’로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부사, 즉 부사부사어의 기능 영역(문장성분)은 다른 실사류와는 달리 오직 부사어로만 충당되는 것이 될 것이다. 역으로, 동일한 의미 항목이면서 부사어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으로도 쓰이는 경우는 부사로 여길 필요가 없다. 이는 명사·동사·형용사·대사·수사가 부사어로 쓰일 때 부사로 여기지 않는 관점과 동일하다.

부사의 이러한 성격이 종래 실사에 귀속시킬 것이나 허사에 귀속시킬 것이나 혼란을 야기한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문장 성분면에서 범위가 매우 협소한 것을 가지고 상당수의 중국학자들이 “부사는 지닌 의미가 비교적 약한 편이어서 명사나 동사 형용사처럼 뜻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부사는 허사에 속한다”<sup>5)</sup>는 식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 같다. 이는 주로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여 부사어에 충당되는

5) 張斌·范開泰, 《現代漢語虛詞研究綜述》(安徽教育出版社, 2002), 21 쪽

것을 부사라 한 것과 곧바로 모순된다.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수식을 한단 말인가? 내용 분류를 보면 이러한 모순된 사고는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즉, 이들 부사를 의미에 따라 時間·程度·狀態·範圍·否定·疑問·推度·判斷·連接·勸令·謙敬 등으로 분류한 경우를<sup>6)</sup> 예로 삼아 말하자면, 뜻이 없이 시간이며, 정도며, 범위며, 상태며 하는 등등을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다.

부사를 허사로 보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상 대부분의 부사는 허화한 것이다.

둘째, 숫자로 보아 부사는 고정적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통일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넷째, 문장에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먼저, ‘虛化’에 대해서 말하자면, 무엇이 어떻게 허화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언어의 문법화 과정의 한 표지로서 ‘虛化’를 엄두에 두었다면 古代漢語에서 명사·동사·형용사·대사·수사 등이 부사어로 쓰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부사를 겸한다고 하는 모순된 태도는 설명할 길이 없다.

다음으로, 그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허사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사람에 따라 부사의 범주, 즉 어휘 수는 가지가지이며,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부사어’가 되는 점을 통일된 기능이라고 한다면 수식 성분이니 더더욱 ‘虛詞’라고 할 수가 없다. 문장 성분과의 1대1 대응관계가 없는 명사·동사·형용사·대사·수사 등에 대하여 대응관계가 분명하므로 ‘虛詞’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또, 문장에서 기능에 의해 위치가 고정되기는 여러 가지 성분으로 쓰이는 다른 실사류와 마찬가지로이다.

부사는 비록 명사·동사·형용사·대사·수사 등과는 쓰임의 범주가 다르기는 하나, 분명히 문 중에서 단독으로 문장 성분이 되는 ‘實詞’이다.

6) 楊伯峻·何樂士, 앞의 책(北京, 語文出版社, 1992), 223~224쪽.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副詞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나, 동사·형용사·명사·대사·수사 등이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것과는 달리 술어(명사·동사·형용사, 수사), 다른 부사 또는 이들에 상응하는 어구를 수식하는 성분으로만 쓰이는 단어의 의미 항목이다.”라고 정의한다.<sup>7)</sup>

### Ⅲ. 古代漢語 ‘乃·則·且’의 副詞性

기존 연구에 나타난 ‘乃·則·且’의 부사성과 접속사성의 구분은 아래의 표1과 같다. 이 표는 주로 先秦-兩漢 문헌을 중심으로 한 馬建忠(2004)과 楊伯峻·何樂士(1992) 등 몇 사람의 ‘乃, 則, 且’의 품사 구분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乃·則·且’ 등은 부사와 접속사의 성질을 모두 겸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助字辨略》에 ‘乃’(149~151)는 “繼事之辭 猶云爰也”(일을 잇는 말이며, ‘爰’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則’(276~278)은 “語辭也 承上趣下辭之急者也”(語辭이다 위를 이어 아래로 나아가게 한다는 말로서 급한 경우이다), ‘且’(167~170)는 “轉語 猶云抑也”(뒤집는 말이다. ‘抑’이라고 이른 것과 같다) 또는 “竝是聊且姑且之辭”(아울러[뿐만 아니라] ‘일단’, ‘잠시’라는 말이다) 따위로 풀이한다. 이러한 설명들을 오늘날의 품사 구분의 근거로 삼을 도리는 없다. 다른 단어들과 구분되는 어떠한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어서 부사와 접속사를 가르게 하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문 중의 다른 단어들의 의미가 엮어낸 문맥에 모종의 의미를 부가하고 아울러 해당 문맥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표현이라 여겨진다.

馬建忠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지녔다고 여긴 단어를 ‘連字’라 명명하였다.

7) 안기섭·정성임·박상령, <古代漢語 문장성분과 품사에 관한 논의(1)>, 《中國人文科學》 32집(2006. 6).

표 1. 乃, 則, 且의 부사성과 접속사성

		乃	則	且
馬建忠: 《馬氏文通》	부사	乃若·乃者: 시간 부사	없음	시간
	접속사	전절	순접	提起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 及其發展》	부사	판단, 의문, 연결	연접	시간, 추도
	접속사	없음	없음	병렬, 선택
《古代漢語虛 詞詞典》	부사	명사(판단)·동사 (순접, 조건)술어 앞	동사(범위, 강 조)술어 앞	수사(근접한 수)· 동사(시간, 정태 범위) 술어 앞
	접속사	복문앞(가설, 전절)	순접, 전절	병렬, 점층, 선택 가설, 전절
殷國光: 《呂氏春秋》 詞類研究	부사	범위, 어기확정 驚 異, 연결(접속, 전절)	없음	어기(반문), 연결 (전절)
	접속사	없음	점층, 전절, 가설 양보, 인과, 조건	병렬, 점층, 순접 전절, 가설
崔立斌: 《孟子》詞類 研究	부사	정태	없음	정태, 시간
	접속사	없음	조건, 인과, 순 접, 전절, 가설, 판단 및 질문	병렬, 점층
姚振武: 《晏子春秋》 詞類研究	부사	정도	없음	시간
	접속사	인과	인과	점층
黃珊: 《荀子》虛詞 研究	부사	범위, 긍정(판단), 관련(전절)	범위, 긍정 (판단)	시간
	접속사	없음	순접, 전절 가설	점층

후대의 楊伯峻·何樂士(1992) 등 역시 접속사를 허사의 하나로 분류하였다. 동시에 부사어 중 연결 기능을 갖는 단어를 連接副詞라 하여 부사의 범주에 넣었다. 서구어의 접속사 중에는 부사가 접속사의 기능을 갖는다 하여 접속부사로 분류한 경우가 있다. ‘also, besides, consequently, however, moreover, furthermore, nevertheless, therefore’ 따위가 그

것이다.<sup>8)</sup> 아마도 이를 모방하여 漢語 또한 부사가 접속 기능을 갖거나 순수하게 접속 기능만을 갖는 접속사가 존재한다고 여겼으리라.

漢語는 순수하게 접속 기능을 갖는 단어의 도움 없이 오로지 문의(文意)만으로도 접속 기능을 나타낸다 또 접속사로 분류해 온 단어들을 모두 허사의 하나로 여길 필요는 없다.<sup>9)</sup> 이 글의 논의를 통하여 밝혀지게 될 주요 내용이다.

위의 표 1에 나타난 구분은 부사와 접속사의 분류 기준에 어떠한 공통성이 있다고 여길 수 없게 한다. 부사나 접속사 중 어느 한 쪽에 귀속시키든 양쪽에 귀속시키든 그것의 세부 의미 또는 기능에 대한 인식 또한 가지 각색이다. 이는 이들 단어의 기능에 이런 것들이 있음을 정확하고 바르게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쓰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체 문외와 문맥 파악의 자의성에 의존하고 그 나머지가 이들 단어의 의미나 기능이라고 여겼음을 알게 해 준다. 이들 단어의 의미나 기능에 의해서 품사를 가르고 그 하위 구분을 한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출입이 많을 수는 없겠기 때문이다.

### 1. 乃(迺)

馬建忠(2004, 314)은 “乃”는 ‘然後’(그런 뒤에)나 ‘而後’(뒤에)로 일이 이어짐을 나타내고, ‘於是’(이에)로 이유를 나타내며 모두 문장 첫머리에 위치한다. 이 외의 다른 의미를 갖는 ‘乃’는 접속사[連字]가 아니다”<sup>10)</sup>라고 하였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8) 한국어에서는 중국어에서 대등접속사로 분류하는 ‘와’, ‘과’를 보조사로 분류하고, 접속사로 분류하는 ‘그리고·그러자·그러며·그러면서·그러고서, 그러나·그렇지만·그래도·그러되’, ‘그러면·그러거든·그래야·그러다가’, ‘그러니·그러니까·그래서’ 등은 접속부사로 분류한다. 한국어의 접속부사는 모두 수식 기능을 갖는다.

9) ‘而’는 허사에 속하나 접속사가 아닐 뿐이다.

10) 馬建忠, 《馬氏文通》(北京, 商務印書館, 2004), 314 쪽

## 가. 乃 + 동사술어

[1] 王遷立 乃用郭開讒 卒誅李牧.(《史記·馮唐列傳》)

(왕천은 즉위하자 **바로[곧]** 광개의 참언을 이용하여 마침내 이목을 죽였다.)

[2] 終不得入中城 乃罷而引歸.(《史記·大宛列傳》)

(끝내 성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바로** 그만두고서 이끌고 돌아왔다.)

[3] 侯生視公子色終不變 乃謝客就車.(《史記·魏信陵君列傳》)

(후영은 공자의 낯빛이 끝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바로** 손님과 작별하고 수레로 갔다.)

[4] 不見子充 乃見狡童.(《詩經·鄭風·山有扶蘇》)

(자충은 보이지 않음 **바로** 교활한 아이만 보이네.)

[5] 將以爲樂 乃得憂焉 將以爲安 乃得危焉 將以爲福 乃得死亡焉.

(《荀子·王霸》)

(장차 즐거움을 삼으려 하면 **바로** 걱정을 얻게 되고, 장차 편안함을 삼으려 하면 **바로** 위험을 얻게 되며, 장차 복으로 삼으려 하면 **바로** 죽고 망하게 되는 것이다.)

馬建忠은 [1]-[3]을 예로 들어 ‘乃’는 앞의 일이 선행된 뒤에 뒤의 일이 곧바로 발생함을 나타내는 連字[접속사]로 여겼다. 이를 후대의 학자들은 순접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의 하나로 여긴다. 그러나 예문 [1]-[5]의 ‘乃’는 모두 동사술어(用·罷·謝·見·得) 앞에 놓여 있다. 이들 ‘乃사’는 어떠한 상황을 전제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을 나타내는 문맥에서 선후관계상 ‘바로(곧)’라는 의미를 보태어 선후관계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접속 기능이라고 여겨 설명해온 내용은 사실 ‘乃’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乃’ 이외의 어휘들이 나타내는 문의와 문맥에 있고, ‘乃’는 이 관계를 부가적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할 따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乃’는 문장 중에서 부사어로만 쓰이므로 부사로 봄이 옳다.

나. 乃(酒) + 부사·非부사부사어

[6] 宛貴人以爲味蔡善諛 使我國遇屠 乃相與殺味蔡 立毋寡昆弟曰蟬封爲宛王。(《史記·大宛列傳》) [부사부사어]

(대원의 귀인들은 말살이 [한나라에] 아침을 잘하여 내 나라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고 여기고, **바로** 서로 더불어 말살을 죽이고, 모과의 아우 선봉을 세워 대원왕으로 삼았다)

[7] 以爲諸侯莫足遊者 乃西入關。(《史記·主父偃列傳》) [명사부사어]

(제후들과는 교류하기에 넉넉함이 없다고 여기고는 **바로** 서쪽으로 관문[함곡관]으로 들어갔다.)

[8] 今已虧形爲掃除之隸 在闕茸之中 酒欲叩首伸眉 論列是非 不亦輕朝廷羞當世之士邪?(《漢書·司馬遷傳》) [동사부사어]

(이제 이미 육체를 이그러뜨려 소제하는 노예가 되어서 친한 무리 사이에 있는데, **바로** 머리를 들어올리고 눈썹을 펴서 웃고 그름을 논하여 늘어놓고자 한다면, [이런] 역시 조정을 가벼이 여기고 당대의 선비들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9] 騶衍睹有國者益淫侈 不能尚德 若大雅整之於身 施及黎庶矣 乃深觀陰陽消息而作怪迂之變 終始大聖之篇十餘萬言。(《史記·孟荀列傳》) [형용사부사어]

(추연은 그것을 가지런히 하여 사치와 음란이 더해져서 덕을 숭상하여 《시경·대아》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서 가지런히 하여 배움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게 할 수 없는 나라가 있음을 보았다. **바로** 음양의 소멸과 성장, 이치와 기이한 변화를 깊이 관찰하여 종시, 대성편 등 10여만 자를 지었다.)

馬建忠은 [6]-[8]의 ‘乃’를 앞의 일과 뒤의 일이 인과관계에 의해 이어짐을 나타내는 連字로 여겼다. 楊伯峻·何樂士(1992, 356) 등은 [7]을 승접이나 시간상의 연결을 나타내는 連接副詞로 여겼다. 楊伯峻·何樂士 등은 馬建忠과 달리 부사를 허사의 하나로 여긴다. 馬建忠은 접속기능을 갖는 단어군을 連字로만 여기는 반면, 楊伯峻·何樂士 등은 副詞(관계부사)와 連詞[접속사]를 겸하여 두 가지 기능을 갖는 것으로 여겼다. 이들이 접속 기능을 하는 단어군을 모두 허사로 여긴 점은 동일하다. [6]-[9]의 ‘乃’

는 뒤의 동사술어 앞에 각각 다른 부사부사어나 非부사부사어(相·西·欲·深)가 더 있는 문장에 쓰였을 뿐, 기능은 동사술어와 바로 이어지는 앞에 예에서와 같다.

#### 다. 乃+명사술어

[10] 是乃仁術也。(《孟子·梁惠王上》)

(이것이 바로 어짊의 방법입니다.)

[11] 呂公安 乃呂后也。(《史記·高帝本紀》)

(여공안이 바로 여후이다.)

楊伯峻·何樂士(1992) 등은 [10]-[11]의 ‘乃’는 모두 명사술어 앞에 놓여 판단을 나타내는 판단부사로 여겼다. 이 역시 [1]-[9]의 쓰임과 같이 명사술어 앞에 놓인 부사로서, 무엇이 ‘바로’ 무엇임(어떠한 사실이 바로 그러함)을 나타내는 수식 성분이다.

馬建忠은 ‘乃’가 문장 중에 쓰일 때 그 풀이는 한결같지 않지만 보통은 ‘狀字’라고 하였다. 그가 한계를 정한 狀字는 무릇 실자로서 동사와 형용사의 모습을 꾸미는 것(凡實字以貌動靜之容者)이다. 馬建忠은 《馬氏文通·正名》에서 虛字는 實字를 가차한 것으로 뜻이 없이 쓰인다 하고, 介字, 連字, 助字, 嘆字를 虛字로 분류하였다. 介字는 무릇 허자로서 실자간에 서로 관계되는 뜻을 연결시켜 주는 것(凡虛字以聯實字相關之義者)이고, 連字는 무릇 허자로서 그것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이어받고 펼치고 전환하는 자구를 만드는 것(凡虛字用以爲提承展轉字句者)이고, 助字는 무릇 허자로서 그것을 사용해서 字와 句讀를 총괄하는 것(凡虛字用以斂字與句讀者)이며, 嘆字는 무릇 허자로서 사람 마음속의 고르지 않은 소리를 올려내는 것(凡虛字以鳴人心中不平之聲者)이라고 하였다.<sup>11)</sup> 그는 介字와 連字의 구별이 쉽지 않다고도 하였다. 후대의 학자 王力(1943, 《中國現代語法》)과 朱德熙(1951, 《語法修辭講話》)는 介字와 連字를 합하여 ‘連結詞’, ‘連接

11) 馬建忠, 앞의 책(北京, 商務印書館 2004), 21-23쪽.

詞’라 각각 명명하였다. 現代漢語를 대상으로 한 《中學教學語法系統提要(試用)》과 劉月華의 《實用現代漢語語法》은 개사와 접속사를 각각 독립된 하나의 품사로 분류하였다.

[1]-[11]에 쓰인 ‘乃’에 대한 前人들의 훈석(또는 주석)에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지만 허사로 분류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馬建忠은 단지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 의미항목을 지닌 단어를 連字(접속사)라 명명하고 연결 기능이 없다면 連字라 명명할 수 없다고 여겼다. 古代漢語 어법을 총괄한 楊伯峻·何樂士(1992) 등은 副詞를 虛詞로 여기고 程度·狀態·範圍·否定·疑問·推度·時間·判斷·連接·勸令·謙敬의 11가지로 분류하였다.<sup>12)</sup> 이들이 연접부사라 명명한 것은 서구어의 접속부사에 상응한다. 서구어의 품사 체계에 맞춰 이들은 접속부사를 부사의 범주로 분류하고 더불어 순수하게 앞말과 뒷말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고 여긴 접속사를 품사의 하나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부사의 범주를 程度·範圍 및 相互·時間 및 頻度·情態 및 推測·否定 및 應對·反問·關係의 7가지로 분류한 데 따라 이들 부사를 분류한다.<sup>13)</sup>

[1]-[11]에 쓰인 ‘乃’의 문장성분은 부사어이다. ‘乃’는 부사어의 자리에 위치하여 술어 또는 술부(주술문)가 의미하는 어떠한 행위가 앞에서 말한 것에 곧바로 이어지거나, 앞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리이러한 것임을 나타낸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이것 이상의 관계는 문맥에 있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는 ‘부사’이고 어느 경우는 ‘접속사’라고 여길 만한 근거가 없다.

12) 楊伯峻·何樂士, 앞의 책(北京, 語文出版社, 1992), 223쪽.

13) 안기섭·정성임·박상령, 앞의 논문, 《中國人文科學》 32집 (2006. 6): 1) 程度 부사: 尤, 頗, 更 따위, 2) 範圍 및 相互 부사: 只, 咸, 皆, 悉, 但, 徒, 祇(祗), 直, 僅, 啻, 唯, 相, 互, 俱 따위, 3) 時間 및 頻度 부사: 已, 既, 將, 方, 輒, 暫, 又, 嘗, 亦, 常, 即, 剛, 頃, 乍 따위, 4) 情態 및 推測 부사: 固, 必, 寧(차라리), 庶, 幾, 蓋, 殆, 尚, 猶 따위, 5) 否定 및 應對부사: 未, 否, 不, 弗, 非, 匪, 唯(惟·維) 따위, 6) 反問 부사: 豈, 寧(어찌), 庸 따위, 7) 關係부사: 乃, 則(即), 却(卻), 且, 才(纔) 따위다

모두 ‘부사’일 따름이다.(대사 14) 제외) 문맥에 의해 나타나는 관계를 ‘乃’가 나타낸다고 ‘乃’에 띄울 일이 아니다. 부가성분인 부사부사어 ‘乃’를 생략해도 문맥상 모종의 접속의 관계는 나타난다. 이는 다른 단어들 간의 의미결합에 의한 것일 뿐 ‘乃’가 순수하게 접속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楊伯峻·何樂士(1992) 등은 심지어 명사술어 앞에 놓인 ‘乃’를 판단부사로 분류하였다. ‘乃’ 앞의 것이 ‘乃’ 뒤의 것임을 판단해 주는 주술관계이니 그럴듯하지만, ‘乃’가 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乃’는 ‘바로(곧)’를 뜻하는 수식어일 뿐이다. 漢語는 연결 기능을 갖는 기능어의 유무에 관계없이 개별 단어 간의 결합만으로 순접, 역접, 양보 따위의 문의(문맥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12] 非不說子之道 力不足也.(《論語·雍也》)[병렬]

(선생님의 道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합니다)

[13] 扁鵲已逃去 桓侯遂死.(《史記·扁鵲倉公列傳》)[일의 선후]

(扁鵲은 이미 달아나 버리렀는데 桓이 기다리다가 마침내 죽었다.)

[14] 陛下用群臣如積薪耳 後來者居上.(《史記·汲黯列傳》)[이유 표시]

(폐하께서 못 신하를 쓰시는 것은 땔나무를 쌓는 것과 같을 따름입니다. 뒤에 온 사람이 위에 있습니다)

[15] 丘也聞有國有家(者) 不患寡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貪 和無寡安無傾.(《論語·季氏》)[이유 표시]

(나[丘]는 적은 것을[적을]까를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못할까를 걱정하며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치 못할까를 걱정하는 나라와 가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고르게 하면 탐하는 일이 없고 조화를 이루면 적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으며 편안하게 하면 기우는 [치우치]는 일이 없어서 일 것입니다)

[16] 不殺二子 憂必及君.(《左傳·成公十七年》)[가정]

14) ‘乃’의 대사 기능은 다음과 같다. 古我先後既勞乃祖乃父 汝共作我畜民 汝有壯則在乃心 我先後綏乃祖乃父.(옛날 우리 선왕들께서는 그대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대들도 함께 나를 도와 백성을 길러야 한다. 그대들에게 壯이 있는 것은 곧 그대들의 마음에 있다.[있어서]이다 우리 선왕들께서는 그대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을 신뢰하셨다.)[《尚書·盤庚中》]

(두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환이 반드시 당신에게 미칠 것입니다)

구와 구, 단문과 단문을 연결하는 기능어가 있다고 여겨 접속사로 분류한다면 [12]-[16]의 경우에도 반드시 어떤 접속사가 쓰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의 예문에는 前人들의 글에서 명명한 관계부사도 古代漢語 품사의 하나로 설정한 모종의 접속사도 쓰이지 않았다.

‘乃若’과 ‘乃者’ 따위는 하나의 단어[詞]인가, 두 단어의 연접인가? 아래의 예를 보자.

- [17] 是故君子有終身之憂 無一朝之患也 乃若所憂則有之.  
 (《孟子·離婁下》)  
 (이 까닭에 군자에게 평생의 근심은 있어도 하루 아침의 걱정은 없다. **바로** 근심하는 바와 같은 것에는 곧 그런 것이 있다.)
- [18] 孟子曰 乃若其情 則可以爲善矣.(《孟子·告子上》)  
 (맹자가 말했다. “**바로** 그러한 성정과 같은 것이면 곧 선하다고 여길 만하다.”)
- [19] 是故子墨子言曰 乃若夫少食惡衣 殺身而爲名 此天下百姓之所皆難也.(《墨子·兼愛》)  
 (이 까닭에 묵자가 말하여 말했다. “**바로** 저 적게 먹고 나쁜 옷을 입고 몸을 죽여서 이름을 만드는[언는] 것과 같은 일, 이는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어렵게 여기는 바이다.)
- [20] 乃者有可言星度之未定也.(《史記·歷書》)  
 (**바로**[곧] 관리가 星度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21] 謂趙王曰 秦乃者過柱山有兩木焉 一蓋呼侶一蓋哭.  
 (《戰國策·趙策一》)  
 (조왕에게 일러 말했다. “신[蘇秦]이 [얼마 전] **바로**[곧] 주산을 지나는데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짝을 부르자 다른 하나가 울었습니다.)

‘乃若’은 전환 관계를 잇는 두 낱말이 결합하여 역접관계를 나타내는 접

속사이고, ‘乃者’는 동사와 조사가 결합하여 ‘종전’[從前, ‘최근’[最近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보는 경우도 있다.<sup>15)</sup> 《廣雅·釋詁》에서는 “乃, 往也”(乃是 往이다)라고 풀이하기도 하였다. [17]-[21]의 ‘乃若’과 ‘乃者’는 복합허사도 구도 아니다. [17]-[21]에서 ‘乃’는 ‘若’이나 ‘者’와 따로 단어의 구실을 한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乃’는 어떠한 사실이 바로 그러함을 부각·강조하거나, 선후관계상 곧바로 어떠한 일이 발생함을 나타내는 부사일 따름이다. ‘若’은 뒤의 일정 부분을 목적어로 이끄는 동사이며, ‘者’는 앞말을 강조·부각시키는 어기조사일 따름이다.

《墨子·明鬼下》의 한 구절을 보자. “昔者燕簡公 殺其臣莊子儀而不辜.” (옛날에 연나라 간공은 그의 신하 장자의를 죽였는데 그는 아무런 죄도 없었다.)의 ‘者’는 ‘昔’ 뒤에 놓여 ‘昔(예전)’을 강조하는 어기조사로 쓰였다. ‘乃’는 오로지 부사어로만 쓰이지만 ‘昔’은 부사어 이외의 문장성분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乃’는 부사이고 ‘昔’은 명사이다. ‘乃者’는 《戰國策》에는 한 번, 《史記》에 두 번 쓰였을 뿐이다. 《漢書》에 이와 같은 쓰임이 다소 보인다.

‘乃’는 동사술어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명사술어나 형용사술어, 술어 앞에 있는 부사·비부사부사어 앞에 놓이기도 한다. 주술구조의 단문 앞에도 놓인다. 어느 경우이든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1]-[11], [17]-[21]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乃’의 의미항목이 여러 개인 듯 보이나 이는 단지 문맥에 의해 나타난 것일 뿐이다. 문맥이 나타내는 의미관계를 ‘乃’ 같은 단어의 기능이라고 덧붙여서는 고대한어 단어의 쓰임을 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여긴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품사의 분류는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乃’는 전후 시간관계를 비롯한 추상적인 관계까지를 나타낸다. 부사의 의미 기능에 따라 나눈다면 ‘관계부사’에 넣을 수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시간부사’와 그 경계가 겹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辭源》(1987, 53)에 풀이된 ‘乃’의 의미항목

1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虛詞詞典》(北京, 商務印書館, 2000), 384-385쪽.

을 살펴보기로 하자.<sup>16)</sup>

- ㉠ 是, 就是. 孟嘗君怪之曰此誰也? 左右曰乃歌夫長鈇歸來者也.(《戰國策·齊策四》: 맹상군이 이상하게 여겨 말했다. “이 사람은 누구요?” 좌우에서 말했다. “바로 ‘저 긴 칼집이여[장협] 돌아가자’라고 노래 부른 사람입니다.)
- ㉡ 代詞. 乃不用我教辭.(《書經·酒誥》: 너는 내가 가르친 말을 듣지 않았구나.)
- ㉢ 連詞. 1. 於是, 然後 俾筵俾几 既登乃依.(《詩經·大雅·公劉》: 자리를 갖추고 탁자를 갖추고는 이미 올라 바로 힘이 되어주네.) 2. 而且, 非獨 聶政能 乃其姊者烈女也.(《戰國策·韓一》: 유독 쥐고 다스림이 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누이가요 열녀입니다) 3. 却, 可是 不見子充 乃見狡童.(《詩經·鄭風·山有扶蘇》: 앞에 나옴) 4. 如果 乃越逐不復, 汝則有常刑.(《書經·費誓》: 바로 멀리 쫓아가서도 붙잡지 못하면 그대들에게 곧바로 일상적인 형벌이 있을 것이다.)
- ㉣ 副詞. 1. 纔, 就 必勝乃戰 毋令人知也.(《孫臏兵法·殺士》: 꼭 이겨야 바로 싸우느니 남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2. 僅, 只 至東城 乃有二十八騎.(《史記·項羽本紀》: 동성에 이르니 바로 28기만이 있었다.)
- ㉤ 助詞. 乃聖乃神, 乃武乃文.(《書經·大禹謨》: 거룩하고도 신묘하셨으며 무에도 능하고 문에도 능하셨다.)

㉠의 ‘乃’는 楊伯峻·何樂士(1992) 등이 명사술어 앞에 놓여 판단을 나타내는 판단부사라 여긴 것이다. ‘乃’는 대답의 말에서 생략된 주어가 ‘바로’ ‘歌夫長鈇歸來’(‘저 긴 칼집이여[장협] 돌아가자’라고 노래 부른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부사이다. ‘판단부사’로도 여김직 하나, 부사의 전체 체계상 ‘관계부사’로 묶는 것이 좋을 듯하다

고대한어에서 술목구는 간단하건 복잡하건 흔히 ‘…한 것(사람, 사물,

16) 안기섭, <古代漢語 助動詞 不在에 관한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32집(2006. 6), 안기섭, 정성임, <現代漢語 ‘能願動詞’의 성격에 관한 考察>, 《中國言語研究》 22집(2006. 6).

추상적 내용 등)’을 나타낸다. 17) ‘者’는 강조의 어기조사이다. ㉔항도 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부사이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乃’에 뒤따르는 성분은 동사술어·형용사술어·명사성술어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술어가 다 올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어떤 품사이건 다른 부사어가 놓일 수 있다. 사실이 바로 그러함 또는 어떠한 일나 상태가 선후관계상 곧바로 이어짐’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부사이며, 부사의 한 부류로서는 ‘관계 부사’로 명명함이 좋을 듯하다.

접속사로 여긴 항과 부사로 여겼으나 의미내용이 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의견은 상술한 바와 같다. 문 중의 다른 단어들의 쓰임이 총괄해 주는 문맥에 의존하여 ‘乃’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해법은 취할 것이 못된다고 여긴다. 대사와 조사로서의 의미항목은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乃’는 실사(대사와 부사)인 경우와 허사(조사)인 경우가 다 있다.

## 2. 則(卽)

馬建忠(2004, 297~308)은 “‘則’은 순접, 인과, 일의 異同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라고 하였다. 아래의 예를 보자.

[22] 仁則榮 不仁則辱.(《孟子·公孫丑上》)

(어질면 바로 영화롭게 되고 어질지 못하면 바로 욕을 보게 된다.)

17) 고대한어에서 ‘...하는 것(사람, 사물, 추상적인 내용 등)’이 ‘好學·扶老’의 경우처럼 ‘술목’구조에 의해서만으로 나타내지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뒤에 ‘者’가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이 구조조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뒤따를 경우, 다른 단어나 어구 뒤에 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기 조사이며 그것이 기능이 똑같이 강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好學·扶老’ 등보다 복잡한 술목구조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함이 옳다. “孟嘗君怪之曰此誰也? 左右曰乃歌夫長鈇歸來者也.”에서 ‘歌夫長鈇歸來’가 그 예이다. 그래서 본문과 같은 번역을 취했다. 만약에 대화의 묻는 말이 ‘此誰也(이 사람은 누구요?)’인 데 대하여 대답 방식이 이에 호응하여 ‘(이 사람이) 누구이다’라고 즉답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바로 ‘저 긴 칼집이여 장협 돌아가자’라고 노래 불렀지요.”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 [23] 是故財聚 則民散 財散 則民衆.(《禮記·大學》)  
 (이 까닭에 재물이 모이면 **바로** 백성이 흩어지게 되고, 재물이 흩어지면 **바로** 백성이 많아지게 된다.)
- [24] 信能行此五者 則隣國之民仰之若父母矣.(《孟子·公孫丑上》)  
 (미덥게[진실로] 이 다섯을 행함에 능하면 **바로** 이웃 나라의 백성들이 그를 우러러보는 것이 부모와[부모를 우러러 보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 [25] 宗邑無主 則民不威 疆場無主 則啓戎心.(《左傳·莊公二十八》)  
 (종묘의 고을에 주관하는 사람[주인]이 없으면 **바로** 백성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변방의 장소에 주관하는 사람[주인]이 없으면 **바로** 오랑캐의 마음을 열게 된다.)
- [26] 夫諸侯之賄聚於公室 則諸侯貳. 若吾子賴之 則晉國貳. 諸侯貳 則晉國壞. 晉國貳 則子之家壞.(《左傳·襄公二十四》)  
 (대제 제후들의 제화가 [진나라의] 공실로 모여들면 **바로** 제후들은 둘이 됩니다. 남이 그것을 사유할 것 같으면 **바로** 진나라가 둘이 됩니다. 제후가 둘이 되면 **바로** 진나라가 무너지며, 진나라가 둘이 되면 **바로** 당신의 가문이 무너집니다.)
- [27] 此臣主之分定 上下之義明 則天下賢不肖莫敢不盡力竭任以徇其君矣.  
 (《史記·李斯列傳》)  
 (이는 신하와 군주의 직분이 정해지고 위와 아래의 의리가 분명해지는 것으로서, [그렇게 되면] **바로** 천하의 현능한 사람이나 어질지 못한 사람이나 감히 힘을 다해서 맡을 일을 하여 그의 군주를 따르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馬建忠은 [23]에 쓰인 ‘則’은 “財의 ‘聚와 散, 民의 ‘散과 聚는 두 개가 서로 반응하는 것으로, ‘則’은 그것을 이어서 그 효과를 말해준다. 조건의 관계를 말해주며, ‘則’이 연결한 前項은 後項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고 後項은 前項의 결과가 되며 전후 두 항은 조건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則’은 일반적으로 ‘就’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財聚民散’은 ‘則’이 쓰이지 않아도 조건(또는 인과)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관계는 이들 단어들의 의미와 문맥이 나타내줄 뿐, ‘則’에 조건이나

인과 관계를 나타내주는 기능이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전후 관계를 알 수 없는 두 부분 간에 ‘則’이 쓰임으로써 비로소 이러한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22]-[27]에 쓰인 ‘則’이 모두 그렇다. 부사 부사어로 쓰였다. 본시 조건이나 인과 관계를 갖는 문맥에 쓰였을 따름이다.

이럴 때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리이러하다는 것을 나타내어 전후의 문맥 관계 강조해 준다. 《廣韻》入聲·德韻(42)에는 “則, 法則 子德切”(則은 법칙이고 子德切이다)이라는 풀이가 보인다. 《廣韻》에는 부사로 쓰인 의미항목은 보이지 않는다. 《助字辨略》(276)은 “語辭也 承上趣下辭之急者也.”(앞에 나옴)라 풀이하였다. 이는 《助字辨略》이 ‘則’을 ‘乃’와 같은 부류로 여겼음을 뜻한다.

- [28] 弟子入 則孝 出 則弟.(《論語·學而》)  
(제자들은 [집에 들어가서는 바로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바로 우에하다.)
- [29] 說大人 則藐之.(《孟子·盡心下》)  
(대인을 설득하려면 바로 그를 멀리한다.)
- [30] 大夫有賜於士 不得受於其家 則往拜其門.(《孟子·滕文公下》)  
(대부가 사에게 내려주는 게 있는데 그의 집에서 받지 못하면 바로 대부의 문에 가서 절한다.)
- [31] 不可 則聽客之所爲.(《左傳·成二》)  
(가능하지 않자 바로 객[진군 측]이 하지는 대로했다[하지는 바를 들었다])
- [32] 出朝 則抱以適趙氏.(《左傳·文七》)  
(조정을 벗어나자 바로 [태자를] 안고서 조나라로 갔다.)
- [33] 爲巨室 則必使工師求大木.(《孟子·梁惠王下》)  
(큰 궁전을 지으려면 바로 반드시 도목수를 시켜서 큰 나무를 구해 오게 할 것입니다.)
- [34] 有人於此 其待我以橫逆 則君子必自反也.(《孟子·離婁下》)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를 대함에 횡포함을 써서 하면 바로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를 반성한다.)

馬建忠은 [28]에 쓰인 ‘則’에 대하여 “入孝와 ‘出弟’는 서로 이어지며 (말미암으며), ‘則’이 이들 사이에 놓여 앞말을 이어서 뒷말이 지속됨을 나타낸다. 순접의 관계로 앞의 사건이 발생 후에 이어서 뒤의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則은 就로 번역하거나 풀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그가 풀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맞지 않다. 당시의 언어에 古漢語의 ‘則’과 대응되는 표현이 없거나 뜻에 차이가 없다고 하여, 어법서에서 단어(字)의 기능을 논하고 품사를 분류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則’이 접속 기능을 전담하는 말이 아님을 인지하고 전후관계가 문맥에 의해 나타남을 말하기 위해서였다면 이 말이 성립할 수 있다. 또 ‘就’로 번역할 수 있다면 ‘則’의 기능과 詞性(품사)은 ‘就’에 비추어 상고했어야 한다. ‘則’의 번역어인 ‘就’는 부사이다. 실은 ‘則’이 곧 ‘부사’임을 말한 셈이다.

후대의 《助字辨略》이나 《虛字說》에 허자라 풀이한 것을 따라 馬建忠 역시 《馬氏文通》에서 허자로 분류하고 때로는 狀字[부사]로 쓰이며 그 구별이 쉽지 않다고는 하였다. [28]-[33]은 동사술어, 또는 동사술어 앞의 다른 부사어 앞에 쓰였고, [34]는 주술문 앞에 놓였다. ‘則’은 수식성분으로서 부사이며 그 갈래를 논한다면 역시 ‘관계부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則’이 쓰인 경우는 조건 내지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문맥 사이에 앞부분이 조건이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乃’와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이들 예 중에는 조건이나 원인에 대한 결과의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보인다.

[35] 道則高矣美矣 宜若登天然.(《孟子·盡心下》)

(도가 바로 높고 아름다우니, 마땅히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다)

[36] 孟公綽爲趙魏老則優.(《論語·憲問》)

(맹공작은 조나라와 위나라의 家老가 되는 데 바로 충분하다.)

[37] 其妻問所與飲食者 則盡富貴也.(《孟子·離婁下》)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더불어서 먹고 마신 바의 사람을 물으니

바로 부유하고 귀한 사람이 다였다.)

- [38] 則曰猶吾大夫崔子也.(《論語·公治》)  
 (우리나라 대부 최자와 같다고 바로 말하였다.)
- [39] 地籟則衆竅是已 人籟則比竹是已.(《莊子·齊物論》)  
 (땅의 피리는 바로 구멍이 많아서 그렇게 될 따름이며, 사람의 피리는 바로 대에 의지해서 그렇게 될 따름이다.)
- [40] 君若伐鄭 以除君害 君爲主. 敵邑以賦與陳蔡從 則衛國之願也.(《左傳·隱公四》)  
 (당신이 정나라를 쳐서 [그렇게 함으로써] 왕께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려 할 것 같으면 왕께서 주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나라는 군대를 가지고 진나라 채나라와 더불어서 뒤를 따를 것인데, 바로 위나라가 바라는 것입니다.)
- [41] 俄然覺 則遽然而周也.(《莊子·齊物論》)  
 (갑작스럽게 깨어나 보니 바로 엄연히 [자신은] 장주였다.)
- [42] 其北則康居 西則大月氏 西南則大夏 東北則烏孫 東則扞彌于寘.(《史記·大宛列傳》)  
 (그 북쪽은 바로 강거이고, 서쪽은 바로 대월지이고, 남서쪽은 바로 대하이고, 북동쪽은 바로 오손이고, 동쪽은 바로 우미와 우전입니다.)

馬建忠은 [35]에 쓰인 ‘則’은 “道가 바로 높고 아름답다”는 것을 연결한다. 병렬의 몇 가지 일이 대구[對舉]에 사용되며 종종 ‘…則…; …則…’의 격식을 만들며 번역해 낼 수가 없다.”고 하였다.

위의 ‘則’도 모두 ‘다름 아니라 바로 이러이러함을 나타내어 역시 부사이다. 예컨대 [35]의 ‘則’은 형용사술어 앞에 놓여 주어인 ‘道’가 바로 ‘高’하고 ‘美’한다는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부사인 것이다. 이상의 예들은 ‘則’이 동사술어, 형용사술어, 명사성술어 앞에 두루 놓임을 보인다. ‘則’과 술어 사이에는 다른 부사어가 올 수도 있다. [35]와 [42]가 앞의 [22]-[34]와 다른 점은 조건이나 인과 관계의 문맥이 아니라는 점이다.

- [43] 指不若人 則知惡之 心不若人 則不知惡 此之謂不知類也.(《孟子·告子上》)  
 (손가락이 남과 같지 않으면 바로 그를 미워할 줄을 알고, 마음이

남과 같지 않으면 **바로** 미워할 줄을 모르니, 이것을 무리 지을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44] 小人則以身殉利 士則以身殉名 大夫則以身殉家 聖人則以身殉天下.

(《莊子·駢拇》)

(소인은 **바로** 자기 몸을 써서 이익을 위해 죽고, 선비는 **바로** 자기 몸을 써서 명예를 위해 죽는다. 대부는 **바로** 자기 몸을 써서 국가를 위해 죽으며, 성인은 **바로** 자기 몸을 써서 천하를 위해 죽는다.)

[45] 萬章曰庶人召之役 則往役 君欲見之 召之 則不往見之 何也?(《孟子·萬章下》)

(만장이 말했다. “서인은 부역에 부르면 **바로** 가서 부역을 행하는데, 국군이 그를 만나고 싶어서 그를 부르면 **바로** 가서 그를 만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46] 布帛長短同 則賈相若.(《孟子·滕文公上》)

(베와 비단은 길이가 같으면 **바로** 값이 서로 같다.)

[47] 來年秦復求割地 王將予之乎 不與 則是棄前貴而挑秦禍也 與之 則無地而給之.(《戰國策·趙策三》)

(이듬해 秦이 다시 땅을 할양하기를 바라면 왕께서는 장차 그것을 주실 것입니까?[주어야 하겠오?] 주지 않으면 **바로** 이것은 종전의 존귀함[명예]을 잃고 진나라의 화를 부르는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주면 **바로** 땅만 없어지고 그것만 주게[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馬建忠은 [43]에 쓰인 ‘則’은 “일이 대응하여 異同이 있음을 나타낸다 곧 ‘손가락이 남과 같지 않으면 **바로** 그를 미워할 줄을 안다’와 ‘마음이 남과 같지 않으면 **바로** 미워할 줄을 모른다’의 앞뒤 내용이 대응하여 異同을 나타내 결과적으로 그릇된 판단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則은 앞 내용의 판단이 그릇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리이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식어로서 역시 관계부사이다. [44]-[47] 역시 이와 같다. 앞의 [22]-[34]와 동일한 문맥 관계 중에 쓰였다.

[48] 則是方四十里 爲阱於國中 民以爲大 不亦宜乎?(《孟子·梁惠王下》)

(바로 이것은 사방 사십 리가 나라 한 가운데서 함정이 되니 백성들이 그것을 크다고 여기는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49] 則是厲民而以自養也 惡得賢?(《孟子·滕文公上》)

(바로 이것은 백성들을 괴롭혀 가지고 자기를 기르는 것이니 어디 [이찌] 현명하게도 될 수 있겠습니까?)

[50] 則王許之乎(《孟子·梁惠王上》)

(바로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51] 夫得者困,可以爲得乎? 則鳩鴞之在於籠也,亦可以爲得矣(《莊子·天地》)

(대저 이루었는데[본성을 따르는데도] 곤경에 처한다면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비둘기나 부엉이가 새장 속에 있어도 역시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2] 然則小固不可以敵大 寡固不可以敵衆 弱固不可以敵彊(《孟子·梁惠王上》)

(이와 같으니 바로 작은 것은 본디 큰 것을 대적할 수 없고, 적은 것은 본디 많은 것을 대적할 없고, 약한 것은 본디 강한 것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馬建忠은 [48]에 쓰인 ‘則’은 “이것은 孟子가 먼저 文王의 함정과 齊나라 함정을 함께 논하다가 후에 齊나라 백성들이 왕의 함정이 크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부연 설명하고, 文王의 함정과 비교하여 그것을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則’은 일의 이치를 미루어 논하는 것으로서 異同을 나타낸다. 무릇 추론되는 이론은 반드시 앞문에 근거하여 異同을 논하게 된다.”고 하였다. ‘則’의 접속사성을 설명하려다 보니 건강부회하게 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則’ 이외의 단어들이 나타내는 의미와 문맥을 설명하는 말이지, 결코 ‘則’의 기능을 설명하는 말이 될 수 없다. [49]-[52]에 쓰인 ‘則’은 문장 앞에 놓여 그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특히 [52]에 쓰인 ‘然則’은 복합허사가 아니다. 然是 동사이고 則은 ‘小固不可以敵大’ 앞에 놓인 부사로 봄이 옳다.

[22]에서 다음 [59]에 이르는 ‘則’은 楊伯峻·何樂士(1992) 등이 連接副

詞로 분류한 아래의 예[53]과 마찬가지로 술어 또는 주술문 앞에서 술어를 수식하는 부사 부사어이다.

- [53] 小人之學也 入乎耳, 出乎口 口耳之間 則四寸耳 曷足以美七尺之軀哉  
 (《荀子·勸學》)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입으로 나온다. 입과 귀 사이는 **바로** 네 치밖에 안 되니, 어찌 일곱 자나 되는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는가?)

《助字辨略》(277~278)에서는 則’이 앞뒤 문맥을 잇는 연결 기능을 지닐 때는 ‘卽’이나 ‘斯’와 같다고 풀이하였다. 아래의 예를 보자.

- [54] 趙奢許諾 卽發萬人趨之.(《史記·廉頗藺相如列傳》)  
 (조사가 허락하여 답하자 **바로** 만 명을 출발시켜 그를 좇게 하였다.)  
 [55] 公徐行卽免死 疾行則及禍.(《史記·項羽本紀》)[조건  
 (공께서 천천히 가시면 **바로** 죽음을 면하고, 빨리 가면 **바로** 화에 미칩니다.)  
 [56] 梁父卽楚將項燕.(《史記·項羽本紀》)  
 (양보는 **바로** 초의 장군 항연입니다.)  
 [57] 所謂立之 斯立 道之 斯行 綏之 斯來 動之 斯和.(《論語·子張》)  
 (이른바 그것을 세우면 **이에[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세워지고, 그것을 말하면 **이에** 행해지고, 그것을 편안케 하면 **이에** 오게 되고, 그것을 움직이면 **이에** 조화를 이룬다.)  
 [58] 庶民興斯無邪慝矣.(《孟子·盡心下》)  
 (평민들이 일어나면 **이에[이것으로]** 사특함이 없어진다.)  
 [59] 季文子三思而後行 子聞之曰再斯可矣.(《論語·公冶長》)  
 (계문자는 세 번 생각한 뒤에 행동하였다. 선생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두 번이면 **이것으로** 된다.”고 하셨다.)

[54]-[56]의 ‘卽’의 기능은 ‘則’과 같다. [56]의 ‘則’을 가지고 판단부사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卽’은 부사로서 명사술어인 楚將項燕이라는 사람이 바로 ‘梁父’임을 나타내는(…이 바로 ~임을 뜻하게 하는) 수식성 분이다. 그러므로 역시 ‘관계부사’의 부류에 든다.

[57]-[59]의 ‘斯’는 여전히 指示代詞로서 이것이 부사어로 쓰인 경우이다. 품사를 달리 볼 수 없다. 관계는 문맥이 나타낸다. 《助字辨略》의 설명은 ‘則·卽·斯’가 동일한 문맥에 사용된 경우에 근거하여 기능을 동일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바꿔 써도 문맥은 바뀌지 않으나, ‘則·卽’과 ‘斯’는 의미상 다르다.

요컨대 ‘則’은 어떠한 행위나 상태 및 사실이 바로 이리이러함을 뜻하는 부사이며 전후관계의 미세한 차이는 모두 문맥에 의한다. 앞부분이 조건 내지 원인이 되고 뒷부분이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辭源》(1987, 194)에 풀이된 ‘則’의 의미항목을 살펴보기로 하자.

- ㉠ 法則. 天生烝民 有物有則.(《詩經·大雅·烝民》: 하늘은 못 백성을 낳으셨고 물건이 있는 데는 법칙이 있다네.)
- ㉡ 效法.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易經·繫辭上》: 황하에서 그림[圖]이 나오며 낙수에서 문자[書]가 나오니 성인이 이를 법칙으로 삼았다.)
- ㉢ 等級. 坤作地勢 高下九則.(《漢書·七十下敘傳》: 곤은 땅의 세를 지으며 높고 낮음은 아홉 등급[규칙]이다)
- ㉣ 采邑. 五命賜則.(《周禮·春官·大宗伯》: 다섯에게 명하여 채읍을 내려 주다.)
- ㉤ 量詞. 如事文一條 一節叫一則 有事文二十九則.(宋 洪邁 《容齋隨筆》卷一: 사문에는 29則이 있다.)
- ㉥ 猶言“作”. 千年往事已沉沉, 聞管與亡則甚!(宋 辛棄疾 《稼軒詞·西江月》: 천 년의 지난 일은 이미 깊디깊고, 管과 더불어 자기와 무관한 일은 흥하고 망함도 바로 깊다[심하다])
- ㉦ 乃, 乃是. 雖隕于深淵, 則天命也, 非君與涉人之過也.(《左傳·哀公十五年》: 비록 깊은 못에 떨어질지라도 바로 천명이지 당신과 더불어 건너는 사람의 과실이 아니다.)

- ㉞ 連詞. 1. 表連接. 宗邑無主 則民不威 疆場無主 則啓戎心.(《左傳·莊公二八年》: 앞에 나옴) 2. 表轉折. 然而 寡人願事君朝夕不倦 將奉質幣以無失時 則國家多難 是以不獲.(《左傳·昭公三年》 과인은 군주를 섬기길 원하여, 조석으로 정성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선사품을 받들어 가지고 [찾아간] 시기를 잃는 일이 없게 하고자 했으나 **바로** 국가에 어려움이 많아 이로써 얻지 못했습니다.) 3. 表假設. 如果, 假使 公子則往 羣臣之子敢不皆負羈縶以從.(《左傳·定公八年》 공자께서 **바로** 가시는데 못 신하들의 자식이 감히 다 공자님의 수레를 끄는 말끈을 쥐고 따르지 않으오리까?)
- ㉟ 副詞. 1. 就, 即. 於是至則圍王離與秦軍遇.(《漢書·三一項籍傳》: 이에[그리하여] 이르자, **바로** 王을 에워싸 때놓고 진나라 군대와 더불어 맞닥뜨렸다.) 2. 僅, 只 小人之學也 入乎耳 出乎口 口耳之間則四寸耳 曷足以美七尺之軀哉(《荀子·勸學》: 앞에 나옴)
- ㊱ 助詞. 匪雞則鳴.(《詩經·齊風·雞鳴》: 닭이 우는 것이 아니다.)

㉞의 ‘則’은 명사이다. ㉞의 ‘則’은 동사로서 흔히 ‘규칙으로 삼다, 본받다’ 등으로 풀이한다. ㉞㉟㊱ 역시 명사로 총괄된다. ㉞㉟은 품사를 말하지 않았으나 ㉟항의 부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㉟항 아래에 ‘僅, 只’ 따위를 풀이를 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여긴다. ‘則’에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맥에 의해 천착한 관계를 ‘則’에 들썩은 것에 다름 아니다. ㉞의 접속사 항에서 ‘連接·轉折·假設’ 운운한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㉟의 부사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則’이 없어도 이러한 문맥은 기본적으로 전달된다. ‘다름 아니라 바로’ 이리이러하다는 의미를 지닌 부사로 쓰여 이 문맥 관계를 부가적으로 더 명확하게 해 줄 따름이다. ‘則’은 동사나 형용사술어, 다른 부사 또는 주술구(또는 주술문) 앞에 놓이는 수식 성분이다. 이들 ‘則’은 現代漢語로 번역할 때 ‘就’를 사용하여 번역할 수 있다. 이 ‘就’의 품사에 대한 인식을 참고하면, ‘則’이 접속사 連詞가 아닐 뿐 아니라 《辭源》에서처럼 마치 여러 가지 의미나 기능이 있는 양 의미 항목을 설정할 수 없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두 ‘곧바로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바로 이리이러함’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역

시 관계부사로 분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음절조사라면, “百仞之山任負車登焉 何則? 陵遲故也.”(《荀子·宥坐》: 백 길 높이의 산에 짐을 실은 수레가 오르는 것은 뭐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구릉이 완만한 까닭입니다.)의 ‘則’은 문말의 어기조사이다.

‘則’의 품사는 실사인 명사와 동사, 부사, 허사인 조사로 압축할 수 있다

### 3. 且

馬建忠(2004, 278~279)은 “且’는 문장 앞에 쓰여 앞말을 긴밀하게 이끌고 한 층 더 나이감을 나타낸다. ‘也’로써 한 층 더 나이감을 돕기도 한다. ‘且’가 문 중에 쓰일 때는 그 의미가 한 가지가 아니며 連字[접속사]가 아니다.”고 하였다. 아래의 예를 보자

- [60] 且以文王之德 百年而後崩 猶未洽於天下.(《孟子·公孫丑上》)  
(또 문왕의 덕을 가지고서도 백년이 된 뒤에야 붕어하셨지만 여전히 아직 천하에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 [61] 張儀曰賴子得顯 方且報德 何故去也?(《史記·張儀列傳》)  
(장의는 말했다. “당신의 도움을 받아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소. 바야흐로 또 은혜를 갚으려 하는데, 무슨 까닭으로 떠나려 하오?)
- [62] 北山愚公者 年且九十.(《列子·湯問》)  
(북산의 우공은 나이가 또 구십이 다 됩니다.)
- [63] 且爾言過矣.(《論語·季氏》)  
(또 네 말이 잘못되었다.[지나쳤다])
- [64] 且王方以存亡繼絕爲名 夫伐小越而畏彊齊 非勇也.(《史記·仲尼弟子列傳》)  
(또 왕께서는 바야흐로 망해 가는 나라를 존속시켜 끊어지려는 후대를 이어 주는 것을 명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대저 작은 월나라를 치고 강한 제나라를 두려워하는 것은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 [65] 往何遽必辱 且又何至是?(《史記·鄭世家》)  
 (간다고 해서 어찌 꼭 욕을 당하겠는가? 또[게다가] 다시 뭐로[어찌, 무엇 때문에] 이지경에 이르겠오?[하라는 대로만 할 수가 있겠소?])
- [66] 且苟爲悅賢而惡不肖 惡用而求有以異?(《莊子·人間世》)  
 (또 진실로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못난 자를 싫어하게 된다면 어디에 [그대를] 써서 달리하는 것이 있기를 바라겠는가?)
- [67] 且也相與吾之耳矣 庸詎知吾所謂吾之非吾乎?(《莊子·大宗師》)  
 (또 서로 더불어 그것을 자기[나]라고 여길 따름이나 [그들이] 어찌 자기[내가] 이른 바가 자기인지 자기가 아닌지를 알겠는가?)
- [68] 且而與其從辟人之士也 豈若從辟世之士哉?(《論語·微子》)  
 (또 그 사람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는 것과 더불어 비교한다면, 어찌 세상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는 것만 하겠는가?)
- [69] 君子有酒 旨且多。(《詩經·小雅·魚麗》)  
 (군자에게 술이 있는데, 맛이 좋고 또 많다.)
- [70] 故時年歲善 則民仁且良 時年歲凶 則民吝且惡。(《墨子·七患》)  
 (까닭에 풍년이 든 때에는 바로 백성들은 어질고 또 착하지만 흉년이 든 때에는 바로 백성들은 인색하고 또 악해지는 것이다.)
- [71] 且恐且喜。(《韓非子·十過》)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또 두렵고 또 기쁘다.]
- [72] 盾曰棄人用犬 雖猛何爲 鬪且出。(《左傳·宣公二年》)  
 (조돈은 “사람을 버리고 개를 쓰나, 비록 사납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하고, [병사들을 상대하여] 싸우면서 또 도망쳐 나갔다.)
- [73] 且引且戰。(《史記·李廣列傳》)  
 (또 물러나고 또 싸웠다 → 한편으로는 물러나고 한편으로는 싸웠다 → 물러나면서 싸웠다.)
- [74] 且馳且射。(《漢書·晁錯傳》)  
 (또 달리고 또 쏘았다 → 한편으로 달리면서 한편으로 쏘았다 → 달리면서 쏘았다.)

[60]은 《助字辨略》(167)에 의하면 發語辭이다. 馬建忠은 앞뒤 문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분류하였다. [60]의 앞글은 “若是 則弟子之感滋甚”(이와 같다면 바로 제자[저]의 미혹됨은 더욱 심해집니다)이다. 어느 경우이든 ‘표’는 ‘또’의 의미를 지닌 부사이다. 어떠한 사실이 부가됨을 나타낸다. 여태까지 문맥 관계에 의해 여러 가지로 분류해 왔을 따름이다. 한 번 쓰이건 전후 상관하여 두 번 쓰이건 간에 어떠한 의미가 부가됨을 나타내는 문맥에 사용되어 부가된 의미를 강조한다. 이를 가지고 ‘표’의 접속기능인 것처럼 여러 가지로 세분하여 설명해 온 것이다.

동사술어, 형용사술어, 명사성술어, 주술문의 앞이나 다른 부사의 앞 등에 두루 쓰였음을 보인다. [67]과 [68]은 여기조사 ‘也’나 ‘而’가 뒤따른 예이다. [61]의 ‘方且’에서 ‘方’은 ‘方’대로 동사술어 ‘報’를 수식하는 시간부사이다. 복합어가 아니다. ‘표’ 역시 ‘관계부사’로 분류함이 좋을 듯하다.

楊伯峻·何樂士(1992) 등은 ‘표’를, 시간부사([61]), 추도부사([62]), 형용사와 형용사([69]-[71]), 동사와 동사([72]-[74]) 간의 병렬, 선택, 점층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분류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표’가 접속사로서 이러한 세분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75] 舉韓氏取其地 且天下之半.(《戰國策·齊策三》)

(한나라를 공격하여 그 땅을 취하니, 또 천하의 반이었다[천하의 반이 진나라 손에 넘어가고 말게 됨을 의미한다])

[76] 且人惡之.(《孟子·公孫丑下》)

(또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77] 不者<sup>18)</sup> 若屬皆且爲所虜.(《史記·項羽本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네[자네들]는 다 또 사로잡히는 바가 될 것이다.)

18) ‘不者’는 앞 내용 곧 “謂曰: “君王爲人不忍, 若入前爲壽, 壽畢, 請以劍舞, 因擊沛公於坐, 殺之.”(일러 말했다. “군왕은 사람됨이 독하지 못하다. 자네가 들어가 앞에서 축수하고 그것이 끝나면 청하여 칼춤을 추다가 이어서 자리에 있는 패공을 쳐서 그를 죽이라”)라고 말한 내용을 부정한다. 앞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 긴 관계로 부정부사 ‘不’ 뒤의 내용이 생략되었고, ‘者’에 의해 강조되었다.

[78] 管仲且猶不可召。(《孟子·公孫丑下》)

(관중은 또 여전히 부를 수 없었다.)

[75]-[78]은 馬建忠이 《馬氏文通》에서 부사로 분류한 예이다. 문장 중에서의 위치에 의거하지 않고 문맥을 살펴서 임의로 부사와 접속사로 분류한 것이다. 각종의 술어와 주술문 앞에 놓이기는 다른 부사와 마찬가지로 지이며, 다른 부사와 함께 쓰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든 ‘且’와 기능상 다른 점이 없다. 이들 예로부터 미루어 나아가 앞의 예들도 파악했어야 했다.

문맥에 의해 순접, 점층 등 여러 가지 의미관계를 살펴낼 수 있을 따름이지, ‘且’가 순접, 점층 등으로 구분되는 연결 기능을 내재한 접속사는 아니다. ‘且’의 뒤에 출현하는 의미가 부가됨을 나타내므로 ‘점층’이라 이를 만한 의미는 ‘且’에 포함된다.

[76]과 같은 경우 자칫 시간부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문맥에 의해 ‘앞으로…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전달될 따름이지 ‘且’에 ‘장차…하게 될 것이다’란 의미항목이 내재한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 ‘且’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또, 게다가’의 범주에 속한다.

《廣韻》에서는 上平·魚韻(26)에 “且, 語辭也 《說文》薦也 子魚切又七也切.”이라고 풀이하였다. 이들 훈석은 ‘且’의 품사 규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辭源》(1987, 44)에 풀이된 ‘且’의 의미항목을 살펴보기로 하자.

- ⊖ 此. 匪且有且.(《詩經·周頌·載芣》: 여기서만 이러한 것이 아니다)
- ⊕ 連詞. 1. 又. 君子有酒 旨且多.(《詩經·小雅·魚麗》: 앞에 나옴) 2. 或者, 還是. 日有食之 則有變乎? 且不在乎?(《禮記·曾子問》) 3. 而. 捨慈且勇, 捨儉且廣, 捨後且先.(《老子》: 자애로움을 버리고 또 용감하려 하고, 검약함을 버리고서 또 [은혜를] 널리 끼치려고 하고, 뒤지는 것을 버리고 또 앞서려 한다) 4. “且……且……”連用. 表示兩件事同時進行. 士死者

過半 而所殺傷匈奴 亦萬餘人 且引且戰.(《史記·李將軍傳》 사병들이 죽은 자가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죽인 흉노 병사도 만여 명이나 되었다. 또 물러나고 또 싸웠다) 5. 表示轉折更進之意. 且爾言過矣.(《論語·季氏》: 앞에 나옴)

㉑ 副詞. 1. 尚且. 天且弗違而 況於人乎?(《易經·乾》: 하늘이 또 어기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랴?) 2. 姑且. 且往觀乎?(《詩經·鄭風·溱洧》: 또 가서 보지 않으시려오?) 3. 將. 北山愚公者 年且九十.(《列子·湯問》: 앞에 나옴)

㉒ 助詞. 用在句首, 如同“夫”. (此有其臣而無其君者也.) 且蹇叔處干而干亡, 處秦而秦霸, 非蹇叔愚於干而智於秦也.(《韓非子·難二》: 또 건축이 간에 있을 때는 간이 땅하였으나, 진에 있을 때는 진이 패자가 됐다. 건축이 간에서는 어리석었고 진에서는 지혜로웠었던 것은 아니다.)

㉑의 ‘且’는 대사 此’의 가차로 본다. 접속사류로 설해한 ㉒도 부사로 설해한 ㉑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모두 ‘어떠한 사실이 부가됨’을 강조하는 부사이다. 그러므로 기능을 ‘又·或者·而·且…且…’ 따위로 구분하는 것도 옳지 않고, 의미를 ‘尙且·姑且·將’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且’ 밖의 단어들이 엮어낸 문맥이 전달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것의 서로 다른 의미나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且’의 의미가 점차 분화되어 ‘姑且’, ‘將’ 등을 뜻하였을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先秦-兩漢의 漢語에서는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리라 여긴다.

㉒의 ‘且’ 또한 ‘어떠한 사실이 부가됨’을 나타내는 문수식부사로 봄이 옳다. 조사가 아니다.

《漢語大詞典》(1권상, 506~507)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의미 항목이 더 있다.

[77] 與物且者 其身之不能容 焉能容人?(《莊子·庚桑楚》)

(물건을 주는데 소홀히 하는 경우는 그 자신도 용납할 수가 없을 것인데 어찌 남을 용납할 수가 있겠는가?)

[77]은 ‘苟且’[소홀히 하다]를 뜻하는 동사이다.

[78] 上之所賞 命固且賞 非賢故賞也。(《墨子·非命上》)

(윗사람이 상을 주는 것은 운명이 본디 또 상을 타게 하는 것이지 현명한 까닭에 상을 주는 것은 아니다.)

[79] 且今天下之士君子 將欲辯是非利害之故 當天有命者 不可不疾非也.

(《墨子·非命中》)

(또 지금 천하의 신비와 군자들은 옳고 그른 것과 이롭고 해로운 까닭을 변론하고자 하는데,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난하기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78]은 ‘宜’(應當)[마땅하다]로 풀이하고 있으나 이는 문맥에 의해 천착한 것일 뿐으로 뒤 술어를 수식하는 관계부사로 봄이 옳다. [79]는 “문두에 놓여 제시(또는 제기)를 나타내며 ‘夫’와 같은 조사”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이 글의 앞 내용은 “在於商夏之詩書曰 命者 暴王作之”(하나나라와 상나라의 시서에 있듯이 운명이란 것은 포악한 임금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였다)이다. ‘且’ 역시 ‘관계부사’로 봄이 옳다.

‘且’의 품사는 실사인 대사, 동사, 부사로 압축된다.

#### IV. 나오는 말

지금까지 乃·則·且의 의미항목 가운데 接續詞[連詞]로 분류해온 것들은 부사로 분류함이 옳다고 여긴다. 이 글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古代漢語 ‘副詞’의 實·虛 귀속 및 副詞의 정의

###### 1) 副詞는 實詞로 귀속됨

副詞는 오로지 부사어로만 쓰이며, 부사어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

므로 단독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독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실사와 허사를 분류하는 절대적 기준이라 할 수 없다.

2) 副詞의 정의

副詞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나, 동사·형용사·명사·대사·수사 등이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것과는 달리 술어(명사·동사·형용사·수사), 다른 부사 또는 이들에 상응하는 어구를 수식하는 성분으로만 쓰이는 단어의 의미 항목이다.

2. ‘乃·則·且’의 부사성

先秦-兩漢문헌에 쓰인 ‘乃·則·且’의 의미항목은 아래와 같다.

1) 乃

- ⊖ 부사[어떠한 사실이 바로 그러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을 전제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함을 나타내는 문맥에서 이러한 관계를 부가적으로 강조함.]
- ⊖ 대사[네]
- ⊖ 조사[음절조사].

2) 則

- ⊖ 부사[조건 또는 원인에 따른 결과의 관계에 있는 문맥을 비롯하여 여타의 문맥에서 ‘다름 아니라 바로’ 이리이러함을 나타내어 이들 문맥 관계를 부가적으로 강조함]
- ⊖ 명사[규칙 등]
- ⊖ 동사[규칙으로 삼대]
- ⊖ 조사[의문조사].

3) 且

- ⊖ 부사[어떠한 사실이 부가됨을 나타냄].
- ⊖ 동사[소홀히 하대]
- ⊖ 대사[이]

乃·則·且의 쓰임을 보면, 古代漢語는 기본적으로 문맥을 통해 순접, 역접, 양보 등 제반관계가 나타나므로 굳이 접속사를 품사의 하나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 부사로서 고유의 의미 중심으로 기능을 파악하면 된다. 지금까지 의미는 없고 기능만 있다고 하여 이것들을 접속사로 규정한 합리적인 논의는 없었다. 대체로 《馬氏文通》 견해의 계승 일면도의 길을 걸어 왔을 뿐이라고 여긴다. 종전에 접속사로 분류했던 다른 단어들도 쓰임을 면밀히 살펴 이들의 품사를 새로이 규정하여야 한다. 乃·則·且처럼 실사의 하나인 부사에 속하기도 하고 명사·동사·형용사·대사 등의 다른 실사에 속하기도 할 것이다. 명사·동사·형용사·부사·대사의 어느 것에 속하든 그것의 기능은 수식이며 부사어이다.

이 글에서는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일부 어휘만을 가지고 고대한어 품사 체계에서 과연 접속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고대한어 어휘의 성질상 잘 부합되는가와 현재와 같은 품사 규정이 적절한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종래 접속사에 귀속시켜온 다른 단어들의 품사 귀속에 대한 부분적 논의는 후일을 기약한다.

#### < 參考文獻 >

- 《孟子》 및 각 譯註本.  
 《詩經》·《楚辭》·《書經》·《論語》·《禮記》·《春秋左氏傳》·《戰國策》·《莊子》·《荀子》·《韓非子》·《國語》·《墨子》·《列子》 등 先秦 문헌 및 각 譯註本.  
 《史記》·《漢書》 등 兩漢 문헌 및 각 譯註本.  
 《廣韻》，臺北，中華書局  
 《辭源》，北京·香港，商務印書館，1987.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漢語大詞典》，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2001.  
 宗福邦·陳世鏡·蕭海波 主編，《故訓彙纂》，北京，商務印書館 2003.

- 《古代漢語知識辭典》，成都，四川人民出版社，1988.
- 王維賢 主編，《語法學詞典》，浙江，浙江教育出版社，1992.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古代漢語虛詞詞典》，商務印書館，2000.
- 조성식, 《영어학사전》，서울, 신아사, 1990.
- 안기섭, <古代漢語 被動義 전달체계와 관련 詞의 詞性>, 《中國語文學論集》 15집, 2000. 10.
- \_\_\_\_\_, <古代漢語 助動詞 不在에 관한 연구>, 《中國語文學論集》36 집 2006. 2.
- 안기섭·정성임·박상령, <古代漢語 문장성분과 품사에 관한 논의(1)>, 《中國人文科學》 32집, 2006. 6.
- 안기섭·정성임, <現代漢語 '能願動詞'의 성격에 관한 考察>, 《中國言語研究》 22집, 2006. 6.
- \_\_\_\_\_, <先秦-兩漢 漢語의 품사 체계 新論>, 《中國學研究》 37집 2006. 9.
- 葛佳才, 《東漢副詞系統研究》, 長沙, 岳麓書社, 2005.
-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2004판.
- 馬建忠(呂叔湘·王海棻編), 《馬氏文通讀本》(1898),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0.
- 廖序東, 《文言語法分析》,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81.
- 楊伯峻, 《文言文法》,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82(1987).
- \_\_\_\_\_, 《古漢語虛詞》, 北京, 中華書局, 2000.
-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北京, 語文出版社, 1992
-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北京, 商務印書館, 2000.
- 易孟醇, 《先秦語法》, 湖南, 湖南教育出版社, 1989.
- 王 力, 《中國古文法》, 山西, 山西人民出版社, 1985.
- 姚振武, 《“晏子春秋”詞類研究》, 河南, 河南大學出版社, 2005.

- 殷國光, 《“呂氏春秋”詞類研究》, 華夏出版社, 1997.
- 人民教育出版社中學語文室, 《中學教學語法系統提要(試用)》,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984.
- 張斌·范開泰, 《現代漢語虛詞研究綜述》, 安徽教育出版社, 2002.
- 章錫琛 校注([清]劉淇), 《助字辨略》, 北京, 中華書局, 2004.
- 張玉金, 《西周漢語語法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4.
- 張在雲, 李運啓, 楊勵, 張弼 校議, 《詞詮校議》, 雲南教育出版社, 1998.
- 崔立斌, 《“孟子”詞類研究》, 河南, 河南大學出版社, 2004.
- 胡裕樹 主編, 《現代漢語》,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1.
- 解惠全 注([清]袁仁林), 《虛字說》, 中華書局, 2004.
- 黃 珊, 《“荀子”虛詞研究》, 河南, 河南大學出版社, 2005.
- 허 벽(許世英, 《中國文法講話》), 《중국고대어법》, 서울, 신아사, 1997.
- 윤석래, <《孟子》複音節詞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장선주, <《馬氏文通》中の 虛字에 관한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 박용수, <《馬氏文通》 研究>(품사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국어과 석사학위논문, 1994.
- 정인숙, <《馬氏文通·狀字章》 분석>, 《中國言文學》 47집, 2006. 6.
- 허 벽, <古代漢語의 連詞 研究>, 《東方學志》, 1999.

<ABSTRACT>

This study limited the scope of examination to ‘乃·則·且’ to determine whether it is suitable to continue the ancient Korean language’s use of conjunction or to keep the present parts of speech.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1. Real and False Morphemes of ‘Adverbs’ in Ancient Korean and Definition of Adverbs

1) Adverbs are Real Morphemes

Adverbs are only used in adverbial phrases and adverbial phrases are not the major component of a sentence. Therefore, it cannot come alone in a sentence. Whether or not a phrase can come alone in a sentence is the absolute criterion of classifying real and false morphemes.

2) Definition of Adverbs

Adverbs have real meaning, but are only used to describe technical terms (nouns, verbs, adjectives, and numerals), other adverbs, or other corresponding phrases, unlike verbs, adjectives, nouns, pronouns, and numerals are used as various components of a sentence.

2. Adverbial Use of ‘乃·則·且’

The following are the definitions of ‘乃·則·且’ in *Xianqin*[先秦]-*Lianghan*[兩漢] Text.

1) 乃

⊖ Adverb [States a fact or additionally emphasizes a causality in a context].

⊖ Pronoun [You]

⊖ Postposition [Propositional Syllable].

2) 則

⊖ Adverb [States “nothing but” in a context of condition or causality or other contexts to emphasize the context].

⊖ Noun [Rules, etc].

⊖ Verb [State a rule].

⊖ Postposition [Interrogative Postposition].

3) 且

- ⊖ Adverb [States an addition of a fact].
- ⊖ Verb [Not paying attention].
- ⊖ Postposition.

As for the use of 乃·則·且, ancient Korean basically shows connection, reverse, yielding in contexts and it is not necessary to state conjunction as a part of speech. It's original meaning can be understood as a part of adverb. No discussion has stated them as conjunction because they only have functions but no meaning. Generally, the linguistic use of the *Mashiwentong*[ 馬氏文通 ] has been succeeded. Other conjunctions with no meaning shall be classified into other parts of speech considering their use. Some would be included in real adverbs, such as 乃·則·且, while others in other real adverbs such as nouns, verbs, adjectives, and pronouns. Whether or not it is a noun, verb, adjective, adverb, or pronoun, it serves as a descriptive adverb.

주제어 : Xianqin[先秦]-Lianghan[兩漢], Mashiwentong[馬氏文通], Adverb, Conjunction